

유형론 관점에서 본 중국어 학습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전이 자질

-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순 일치성을 중심으로 -

李正心*

◁ 목 차 ▷

- I. 들어가기
 - II. 모국어의 긍정적 전이
 - III. 어순유형론
 - IV.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순 일치성
 - V. 한국어 의존적 중국어 학습법
 - VI. 나가기
-

I. 들어가기

인간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중에 기존에 습득된 지식의 영향을 받는다. 이를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전이'라고 부른다.¹⁾ 제2언어 습득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습득한 모국어의 형식, 구조, 의미 등을 제2언어 습득에 적용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언어 전이(language transfer)'라고 한다. 즉, 학습자의 모국어가 제2언어 습득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언어 전이이다.

대조분석 연구에서는 모국어가 제2언어 학습에 대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成均館大學校 中語中文科 招聘教授

1) 행동주의(behaviorism)는 행동을 자극(stimulus)과 반응(response)의 관계로 보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나왔다. Watson, Bloomfield, Skinner 등에 의하면, 인간은 살면서 수많은 자극에 노출되며 어떤 자극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면 자극은 보강되고(reinforced) 보강이 반복되면 그 자극은 결국 습관이 된다는 것이다. 행동주의는 언어 학습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학습도 이러한 습관의 형성(the formation of habits)으로 본다.

고 생각하기에 모국어의 '간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²⁾ 그러나 언어 전이가 꼭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언어 전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2언어 습득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전이(positive transfer)이고, 또 하나는 습득을 방해하는 부정적 전이(negative transfer)이다.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제2언어 학습은 모국어 습관을 대체하는 목표어 습관을 형성하는 훈련이다. 여기서의 초점은 모국어 습관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목표어를 학습할 때 도와주거나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조분석 가설은 모국어와 목표어와 유사하다면 목표어 학습이 쉬워지고 상이하다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예를 들면,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 학습자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통사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순에서 실수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이다. 결국 대조분석 가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³⁾

① 목표어 학습상의 실수는 주로 모국어와 목표어의 차이에서 나온다. 차이점이 클수록 더 많은 실수가 발생한다.(One can account for errors by considering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language and the second language. The greater the differences, the more errors will occur.)

② 연습을 할수록 완벽해진다. (Practice makes perfect.)

③ 교사는 모국어와 목표어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Teachers need to focus their teaching on structures which were believed to be difficult and difficult structures would be those that were different in the first and second languages.)

2) 대조분석 가설(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은 모국어와 목표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 차이점이 언어 학습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가설은 1950-60년대에 성행했던 구조주의언어학과 행동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3) Robert Lado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pplied Linguistics for Language Teachers》 1957년, 원경식 옮김 《언어와 문화》(서울, 형설출판사, 1980)

II. 모국어의 긍정적 전이

우리는 언어라는 도구로 교제를 할 때 실수나 오류를 범하게 된다. 실수는 발화 과정 중 단순한 수행 잘못에서 기인하는 데 반해, 오류는 규칙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오류는 모국어 화자보다 제2언어 학습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 최근의 경향은 외국어 학습자가 자주 범하는 오류를 분석함으로써 학습자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왜 이런 오류를 범하는지, 또 어떻게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지 등의 연구를 많이 한다. 초기의 오류 분석 연구가 오류의 양상과 유형을 분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의 경향은 오류의 원인을 추적하는 데 관심을 둔다. 그리고 오류의 주된 원인으로 모국어에서 오는 부정적 전이를 지목한다. 모국어와 목표어 간의 차이가 필연적으로 목표어 학습에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국어와 목표어 간의 차이점이 제 2언어 학습에 중요하다고 보는 대조분석 가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대조분석 가설은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 현상이 동시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 현상에만 주목해왔다.

하지만 본고는 모국어와 목표어 간의 공통점도 차이점 못지않게 제 2언어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특히나 중국어는 한국어와 완전히 상반된 어순이라는 오해와 선입관이 있기에 학습자들은 학습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제2언어 습득 과정에서 모국어의 지식과 경험이 제2언어 학습에 반영되는 모국어 전이 현상은 피하기 어렵다. 모국어 전이에는 목표어의 언어학적 자질이 모국어에 공유되지 않아서 목표어 습득을 방해하는 부정적 전이도 있지만, 반대로 목표어 습득을 자극하고 촉진시키는 긍정적 전이도 있다.

모국어 화자는 이미 모국어 습득을 경험했기에 모국어의 언어학적 제약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있다. 부정적 전이는 모국어와 목표어의 규칙이 달라 모국어의 지식이 목표어 학습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이므로, 부정적 전이로 인한 학습상의 어려움은 모국어와는 다른 목표어의 언어 영역을 식별해 나감으로써 극복해야 한다.

긍정적 전이는 모국어 규칙에 대해 '의식화'가 필요하다. 모국어 습득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외국어 학습에서 긍정적 전이를 이용해 목표어를 습득하려면 모국어에 내재된 규칙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찾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한국어 규칙을 물어 보곤 하는데 깜짝 놀랄 만큼 엉뚱한

답을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다. 평소에 이미 무의식적으로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모국어지만 모국어의 규칙을 인지하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다.

이에 본고는 중국어 습득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한국어를 이용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와 중국어가 공유하는 자질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즉, 중국어 학습에 있어 긍정적 전이의 역할을 하게 될 공통된 자질들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한국어 중국어 양 언어 간에 존재하는 공통된 자질은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양 언어 간 어순의 일치함에 주목하여 우선 통사론적 측면에 한정하여 논할 것이다.

본고는 한국어와 중국어가 통사구조에서 학습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전이 자질을 공유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긍정적 전이 작용을 하는 유형학적 자질을 밝혀 한국어를 통한 중국어 학습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3장에서 어휘유형론을 고찰하고 4장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간의 어순을 비교할 것이다. 또한, 5장에서 중국어와 한국어에 공유되는 긍정적 전이로서의 몇 가지 통사론적인 자질들을 논의할 것이다.⁴⁾ 그리고 나서, 6장에서 한국어에 의존하는 학습법이 중국어 습득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할 것이다.

Ⅲ. 어순유형론

1. 언어보편성

언어보편성(universals)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가능한 많은 종류의 언어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언어적 보편성은 몇 가지 형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고 보편성을 구성하는 요소 간에는 일련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유형론(typology)은 이러한 언어보편성에 입각하여 언어 간의 공통성을 탐구하

4) 첫째,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위치한다. 둘째,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 문장의 필수성분인 주어와 목적어의 생략이 가능하다. 셋째,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대동사의 삼입이나 주어, 동사의 도치가 필요 없다.

거나 공통성에 입각하여 특정 언어의 특징을 밝히는 것이 내용이다. 이 가운데 19세기 언어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형태유형론이었다. Schlegel, Humboldt 등의 굴절어, 교착어, 고립어의 구분은 바로 형태유형론의 산물이다.⁵⁾

20세기 초반은 언어의 개별성을 강조한 구조주의언어학이 우위를 차지했기에 언어의 보편성과 맥을 같이 하는 유형론 연구는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통사론이 문법 연구의 중심이 되면서 어순도 중요시되자 유형론 연구도 함께 활발해 질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인간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어찌하다'의 배열이다. 그런데 이 배열의 순서는 언어마다 다르기에 각 언어의 어순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들 배열의 종류가 무한한 것은 아니어서 몇 개의 유한한 개수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리기에 유형론 연구는 언어의 보편성, 어순과 함께 연관성을 갖는다.

언어 유형론은 사실상 어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고 Greenberg(1963)로부터 체계를 잡았다. 그는 모든 언어는 수식하는 말(modifying element)과 수식되는 말(modified element) 사이에 일정한 어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Greenberg는 「이 중 몇몇 요소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비교적 독립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어순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기본 어순 유형(the basic order typology)'인데 기본 어순 유형을 결정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전치사(Pr)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후치사(Po)를 갖고 있는가?

둘째, 평서문에서 명사 주어와 명사 목적어, 동사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떠한가?

셋째, 형용사(A)와 명사(N)와의 위치 관계가 형용사-명사의 배열인가 혹은 명사-형용사의 배열인가?

이 가운데 두 번째 기준인 주어, 목적어, 동사의 조합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VSO, SVO, SOV, VOS, OSV, OVS 6가지가 된다. 그런데 Greenberg의 통계

5) 형태론적 사실에 근거하여 유형을 분류한 것이 형태유형론(Morphological Typology)이며, 통사론적 사실에 근거하여 유형을 분류한 것이 통사유형론(Syntactic Typology)이다. 본고가 논의하는 어순유형론은 바로 통사유형론이다. 전상범 《형태론》(서울, 한신문화사, 1995), 16-26쪽 참조.

결과 대부분의 언어들은 주어가 목적어 앞에 오기 때문에 VSO, SVO, SOV의 3가지 유형이 지배적인 어순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3가지는 매우 드물다고 했다. 여기서 Greenberg는 '거의 모든 언어에서 주어가 목적어에 앞선다.'는 제1 보편 규칙을 제시한다.

Greenberg는 30개 표본 언어의 통계 결과 어순의 상호관계를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1. 주어, 동사, 목적의 어순은 많은 언어가 SOV, SVO 두 유형에 속한다.

(1) 나는 논문을 썼다.

동사가 문장의 맨 뒤에 오는 한국어가 SOV 유형의 전형적인 예이다.

(2) I wrote a paper.

동사가 주어의 뒤, 목적어의 앞에 오는 영어가 SVO 유형의 좋은 예이다.

2. SOV 유형은 후치사, 동사-조동사의 어순을 갖고, SVO 유형은 전치사, 조동사-동사의 어순을 갖는다.

(3) 당신은 오늘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SOV 유형인 한국어는 조동사가 동사 뒤에 위치하며, 후치사가 있다.

(4) You can start working from today.

SVO 유형인 영어는 조동사가 동사 앞에 위치하며, 전치사가 있다.

3. 비교 구문의 어순은 SVO/SOV, Pr/Po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5) 건강은 돈보다 낫다.

SOV 유형인 한국어는 '비교대상-비교형용사'의 어순이며, 비교대상이 후치사 앞에 위치한다.

(6) Health is better than money.

SVO 유형인 영어는 '비교형용사-비교대상'의 어순이며, 비교대상이 전치사 뒤에 위치한다.

4. AN/NA의 어순은 SOV/SVO 어순과 밀접한 연관성이 없다.

(7) 예쁜 아가씨

(8) pretty girl

SOV 유형인 한국어와 SVO 유형인 영어 모두에서 '형용사-명사' 어순을 보인다. Greenberg의 통계에 따르면, SOV 유형은 거의가 '형용사-명사' 어순인 반면, SVO 유형은 범언어적으로 '명사-관형어' 어순과 '관형어-명사' 어순이 혼재하고 있다.

5. 동사와 목적어의 순서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순서와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가 있다.

(a) 목적어가 동사 앞에 나오면, 명사를 수식하는 요소는 명사 앞에 놓이고 동사를 수식하는 요소는 동사 앞에 놓인다.

(b) 목적어가 동사 뒤에 나오면, 명사를 수식하는 요소는 명사 뒤에 놓이고 동사를 수식하는 요소는 동사 뒤에 놓인다.

즉,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순서는 목적어와 동사의 순서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목적어와 동사의 순서는 OV이다. 따라서 부사는 그것이 수식하는 동사보다 앞에 올 것이다.

(9) 철수는 서울에서 영화를 만났다.

(9)에서 수식성분 ‘서울에서’는 동사 앞에 위치하고 있다. 바로 ‘목적어가 동사 앞에 나오면 동사를 수식하는 요소는 동사 앞에 놓인다.’에 부합한다.

(10) John met Mary in Seoul.

한편, (10)에서는 수식성분 ‘in Seoul’이 동사 뒤에 위치하고 있다. 바로 ‘목적어가 동사 뒤에 나오면 동사를 수식하는 요소는 동사 뒤에 놓인다.’에 부합한다.

이처럼 Greenberg는 동사와 목적어의 상대적인 위치가 다른 여러 언어성분의 어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표로 요약하였다.

〈표1〉 동사와 목적어의 상대적 위치와 관련된 특징⁶⁾

VO 언어	OV 언어
피수식어/수식어	피수식어/수식어
동사/부사	부사/동사
명사/형용사	형용사/명사
명사/관계절	관계절/명사
명사/소유격(of the box)	소유격/명사
그 밖의 상관관계	그 밖의 상관관계
조동사/동사(can, have)	동사/조동사
전치사/명사	명사/후치사
문말의문조사가 없다	문말의문조사가 있다

2. ‘중국어는 SVO인가’

사실, Greenberg의 어순유형론이 중요한 것은 VSO, SVO, SOV 등의 유형을

6) Li & Thompson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박정구·박종한 역 《표준중국어문법》(서울, 한울아카데미, 1996), p.40 참조.

설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목적어와 동사의 어순이 다른 언어성분의 어순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중국어이다. 중국어는 Greenberg가 주장한 동사와 목적어의 순서와 그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여러 특징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사와 목적어의 순서만 놓고 보면 중국어는 분명 OV가 아니고 VO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중국어는 수식어가 항상 피수식어의 앞에 위치한다. ‘수식어-피수식어’ 어순은 SOV 언어의 대표적인 특성이며, SVO 언어는 ‘피수식어-수식어’ 어순을 갖는 것이 보편적이다. 즉, 중국어는 SVO 유형인데도 SVO 유형이 갖는 보편적 특성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중국어의 이런 변칙적인 특성은 우리로 하여금 중국어가 오래전에 어순의 변화를 겪었거나 혹은 지금도 겪고 있는 중이라고 가정하게 한다. 여기에 두 가지 가설이 있다. 하나는 상고중국어 시기에 원래 SOV 언어였는데 현대중국어의 어순인 SVO 어순으로 변천했다는 것이다.⁷⁾ 또 다른 가설은 중국어가 SVO 어순에서 SOV 어순으로 변화하는 중이라는 것이다.⁸⁾

사실, 어순의 변화는 설명하기 매우 복잡한 통사적 변화이다. 중국어에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친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는가를 밝히기란 결코 간단치가 않다. 두 가지 가설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지금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어가 SVO 언어지만 오히려 SOV 언어가 지닌 유형적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중국어가 SVO인가 SOV인가 하는 문제는 1980년대부

7) Li & Thompson(1974)은 현대중국어가 SVO에서 SOV로 변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고대시대에는 SOV였으나 선고대시대부터 고대중국어까지 SVO로 변화했으며, 그 후로 다시 SOV로 변화했다고 했다. 그는 발견되는 어순 변화는 모두 중국의 내부적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했는데, 수천 년 전부터 외부와의 접촉이 있었던 상황에서 언어가 외부의 영향 전혀 없이 내부적으로만 변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박정규 <중국어 어순유형론 연구의 성과와 전망>, 《中國學報》2006년, 제54집 42-43쪽 참조.

8) Hashimoto(1975)는 아시아 대륙에서의 어족 간의 접촉이 언어 변화에 끼친 영향에 주목하여 북방 알타이어와의 접촉설을 주장했다. 중국어는 유사 이래로 끊임없이 알타이어화 과정을 겪어 오며 SOV 언어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Hashimoto <아시아 대륙에서의 언어 확산: 한장어의 유형학적 다양성 문제>, 엄익상 역, 한국중국어언어학회 편 《中國語 語順 研究》(서울, 송산출판사, 1998), 75-76쪽 참조.

터 학자들 간에 대립되어 왔다. 중국어를 SVO 언어로 보는 견해는 梅廣(1982), 屈承熹(1983) 등이 있다. 梅廣(1982)은 목적어 전치의 주요 논점인 ‘把’자문은 기본 어순을 나타내는 문형이 아니라 기본 문형에서 변형된 문형이므로 중국어의 기본 어순이 SOV라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⁹⁾ 屈承熹(1983)는 Li & Thompson(1974)을 비롯한 SOV로의 변화를 주장한 학자들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명사-수사-분류사’가 ‘수사-분류사-명사’의 순서로 변한 것은 단지 구조적인 변화일 뿐 수식어-피수식어 간의 어순 변화와는 무관하다고 했다.¹⁰⁾

중국어를 SOV 언어로 보는 관점에는 Li & Thompson(1974), Tai(1976) 등이 있다. Li & Thompson(1974)은 ‘把’구문과 ‘被’구문의 출현, 복합어, 후치사, 동사접미사의 출현을 중국어가 SVO 구조에서 SOV 구조로 변화했다는 유력한 증거라고 했다.¹¹⁾ Tai(1976)는 부사성 전치사구가 동사 뒤에서 동사 앞으로 이동하여 ‘VP+PP’와 ‘PP+VP’가 공존하게 된 것은 중국어가 북방 알타이어의 영향을 받아 어순이 변한 결과라고 했다.¹²⁾

1990년 이후에는 장호득(2004), 박정구(2006) 등의 연구가 있다. 장호득(2004)은 중국어에서 수식관계를 나타내는 기능표지는 후치사로 봐야 하며 따라서 어순도 ‘수식어-피수식어’가 되어 OV의 경향성을 띠는 반면, 지배관계를 나타내는 기능표지는 전치사로 봐야 하므로 VO의 경향성을 띤다고 했다.¹³⁾ 박정구(2006)는 지난 40년간 진행되었던 중국어 어순 연구에 대해 그 성과를 회고하였고 동시에 비판적 검토를 통해 공시적 연구에 있어 통시적 관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¹⁴⁾

9) 梅廣 〈현대한어는 정말 SOV 언어인가?〉, 1982년, 이영호 역, 한국중국어학회 편 《中國語 語順 研究》(서울, 송산출판사, 1998), 86-92쪽 참조.

10) 屈承熹 〈한어 어순과 어순 변천상의 문제〉, 1983년, 남궁양석 역, 한국중국어학회 편 《中國語 語順 研究》(서울, 송산출판사, 1998), 196-197쪽 참조.

11) Li & Thompson 〈SVO에서 SOV로의 어순 변화에 대한 해석〉, 1974년, 이창호 역, 한국중국어학회 편 《中國語 語順 研究》(서울, 송산출판사, 1998), 38-40쪽 참조.

12) Tai, James. H·Y. 〈On the Change From SVO to SOV in Chinese〉, 《Parasession on Diachronic Syntax, Chicago Linguistic Society》 1976년, 291-304쪽 참조.

13) 장호득 〈중국어 어순에 대한 고찰〉, 《東洋學》 2004년 제35집, 17-18쪽 참조.

14) 박정구 〈중국어 어순유형론 연구의 성과와 전망〉, 《中國學報》 2006년 제54집, 37-38쪽 참조.

중국어 어순 연구는 통사론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 분야이다. 지난 40여 년간 중국어 어순 연구에 있어서 현대중국어의 기본 어순이 무엇인지에 관해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이러한 논쟁 가운데 중국어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통시적으로 어떠한 변천을 겪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했다. 즉, 역사적으로 중국어가 SVO에서 SOV로 변화했는지, 아니면 지금도 변화가 진행 중인 건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그 변화가 중국어의 내재적인 요인으로 인한 변화인지 아니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변화인지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상당한 양의 성과가 축적되었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모두 중국어의 통사론적 특성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서, 중국어 어순 연구의 성과가 중국어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제안은 없었다. 이에 본고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어의 어순이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일치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어 문장의 어순 구조가 중국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논의하려 한다. 즉, 본고는 중국어가 단순히 SVO 유형에 속하는 언어가 아니고 오히려 한국어처럼 SOV 유형의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중국어 습득에 있어 한국어에 의존하는 학습 방법이 효과적일 거라고 제안한다.

IV.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순 일치성

한 문장을 구성하는 논리적 구조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어찌하다’의 성분들인데, 이 가운데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성분은 ‘어찌하다’인 동사이다. 언어 유형론에서는 문장에서 동사가 목적어 앞에 오느냐, 혹은 뒤에 오느냐에 따라 다른 언어성분들의 순서가 결정된다고 말한다. 한국어는 동사가 목적어 뒤에 오는 SOV로서,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는 명사 앞에 오고,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어는 동사 앞에 온다. 특히 한국어는 매우 안정적으로 Greenberg의 어순의 보편적 상관관계를 따르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어는 동사가 목적어 앞에 오는 SVO 언어이므로 언어 유형론의 상관관계에 따르면 명사를 수식하는 요소는 명사 뒤에 놓이고 동사를 수식하는 요소는 동사 뒤에 놓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어와 마찬가지로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가 명사 앞에 놓이고,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어가 동사 앞에 놓인다.

이처럼 중국어는 SVO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언어 유형론적 보편성에 어긋나는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어는 SVO 언어이면서 SOV를 기본 어순으로 하는 언어 유형과 통사적 특징을 같이 한다. 다음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의 어순을 비교하여 중국어가 그 기본 어순이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영어보다도 오히려 한국어와 어순이 일치함을 살펴보려한다. 여기에서 3가지 언어의 유형론적 보편성 일치 여부는 Greenberg의 <표1>를 기준으로 한다.

1. 명사-후치사 / 전치사-명사

- (11) 도서관에서
at library
在圖書館

(11)은 <표1>에 의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가 모두 유형론적 보편성에 일치한다. 그러나 중국어는 분명 다음과 같은 예도 존재한다.

- (12) a. 도서관 안에서
b. 在圖書館里
c. 圖書館里

(12b)에서 里는 방위사인데 장소명사 뒤에 위치하므로 후치사이다. 또한, (12c)처럼 방위사와 함께 쓰는 전치사는 자주 생략되어 후치사만 남기도 한다. 이를 보면 중국어는 ‘전치사-명사’ 어순과 ‘명사-후치사’ 어순이 함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 속격-명사 / 명사-속격

- (13) a. 소년의 박스
b. the boy's box

- c. the corner of the box
- d. 少年的盒子

한국어는 SOV 언어이므로 (13a)에서 ‘속격-명사’ 어순으로 보편적 유형론에 부합한다.

영어는 SVO 언어로서 두 가지 어순이 있다. (13c)와 같이 소유자가 무생물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유격은 피수식어 뒤에 놓인다. 그러나 (13b)처럼 소유자가 생물일 경우에는 소유격은 피수식어 앞에 위치한다.

중국어는 SVO 언어인데도 (13d)를 보면 한국어처럼 ‘속격-명사’ 어순이기에 보편적 유형론에 어긋난다.

3. 관형어-명사 / 명사-관형어

- (14) 예쁜 아가씨
pretty woman
漂亮的姑娘

한국어는 SOV 언어이므로 ‘관형어-명사’ 어순으로 보편적 유형론에 일치한다. 그러나 영어와 중국어는 SVO 언어이면서 한국어처럼 ‘관형어-명사’ 어순으로 보편적 유형론에 어긋난다.

Greenberg에 따르면, 관형어와 명사 간의 어순은 범언어적으로 SVO 유형이라고 해도 ‘명사-관형어’ 어순을 보이지 않고 ‘관형어-명사’ 어순을 보이는 경향이 많다.

4. 관계절-명사 / 명사-관계절

- (15)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영화는 재미있었다.
The movie which we saw yesterday was interesting.
我們昨天看過的那部電影很有意思。

한국어는 SOV 언어이므로 '관계절-명사' 어순이며, 영어는 SVO 언어이므로 '명사-관계절' 어순인 것은 모두 보편성에 부합한다. 그러나 중국어는 SVO 언어인데도 한국어처럼 '관계절-명사' 어순을 보여 보편성에 어긋난다.

Greenberg에 따르면, '관계절-명사'의 어순은 SOV 어순을 가진 한국어, 일본어 등 아시아 지역의 언어에서만 관계되는 현상인데 중국어가 '관계절-명사' 어순을 따르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고 하겠다.

5. 비교대상-비교형용사 / 비교형용사-비교대상

(16)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덥다.

Today is much hotter than yesterday.

今天比昨天熱得多。

한국어는 SOV 언어로서 '비교대상-비교형용사' 어순이며, 영어는 SVO 언어로서 '비교형용사-비교대상' 어순이어서 둘 다 보편성에 부합한다. 그러나 중국어는 SVO 언어인데도 한국어처럼 '비교대상-비교형용사' 어순을 보이므로 보편성에 어긋난다.

6. 부사어-동사 / 동사-부사어

1) 시간부사어

(17) 내일 학교 입구에서 만나자.

Let's meet at the entrance to the school tomorrow.

明天在學校門口見面吧。

2) 장소부사어

(18) 어제 우리는 호텔에서 저녁 먹었다.

We had dinner at the hotel yesterday.

昨天我們在飯店吃飯。

3) 양태부사어

- (19) 그녀는 진지하게 수업 듣는다.
She takes classes earnestly.
她認真地聽課。

4) 공동부사어

- (20) 나는 내 친구랑 왔어.
I came here with my friend.
我跟我朋友一起來的。

5) 기점부사어

- (21) 그는 방안에서 나왔다.
He came out from the room.
他從房間里出來。

한국어는 SOV 언어로서 '부사어-동사' 어순이며, 영어는 SVO 언어로서 '동사-부사어' 어순이므로 둘 다 유형론적 보편성에 부합한다.¹⁵⁾ 그러나 중국어는 SVO 언

15) 영어는 SVO 언어로서 대체로 '동사-부사어'의 어순을 갖고 있으므로 유형론적 보편성에 부합한다. 그러나 영어의 부사어 가운데 예외적으로 동사 앞에 위치하여 유형론적 보편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빈도부사어이다.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seldom 등의 빈도부사어는 동사 앞에 위치한다.

My mom always nags constantly.
우리 엄마는 늘 잔소리 하신다.
我媽老是嘮叨。

위 예문을 보면, 빈도부사어인 경우에는 영어, 한국어, 중국어 모두에서 '빈도부사어-동사'의 어순이다. 여기서 한국어는 SOV 언어로서 유형론적 보편성에 부합하지만, 영어

어임에도 한국어처럼 ‘부사어-동사’ 어순을 가짐으로써 보편성에 어긋난다. 위 예문에서 보듯이, 중국어는 시간부사어, 장소부사어, 양태부사어¹⁶⁾, 공동부사어, 기점부사어 모두에서 한국어와 동일한 어순을 갖는다. 즉, 한국어와 중국어는 ‘부사어-동사’ 어순으로써 둘 다 수식어가 피수식어의 앞에 위치한다.

특히, 둘 이상의 부사어가 연속으로 출현한 예를 살펴보면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순의 일치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22) 나는 어제 PC방에서 반 급우들과 놀았다.

I played with my classmates in the internet cafe yesterday.

我昨天 在网吧 和同學們玩儿。

위 예문처럼 둘 이상의 부사어가 연속으로 나타나는 어순에서 한국어는 ‘시간-장

와 중국어는 보편성에 어긋남을 알 수 있다.

- 16) 한국어는 부사어의 종류에 상관없이 ‘부사어-동사’ 어순으로 항상 고정적이다. 주의할 점은 한국어의 양태부사어는 중국어로 표현될 때 양태부사어로 표현되기도 하고, 정태보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는 빨리 달린다.

(a) 他快快地跑。

(b) 他跑得很快。

(a), (b)는 모두 “그는 빨리 달린다.”로 번역된다. 그러나 내포된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 한국어는 부사어가 동작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나타내지만, 중국어는 동작의 과정은 부사어로 나타내고, 동작의 결과는 보어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어는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단어가 부사어로 쓰여 ‘횟수부사-동사’의 어순인 것과 달리, 중국어는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단어가 동량보어로 달리 표현된다. 중국어에서 보어의 위치는 동사 뒤에 위치하므로 동량보어의 어순은 ‘동사-동량보어’ 순이 된다.

나는 이 영화를 2번 본 적 있다.

我看過兩次這部電影。

본고는 중국어와 한국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자질에 주목하여 긍정적 전이를 이용하여 중국어 학습을 하려는 목적이므로 이처럼 양 언어에서 공유하지 않는 자질은 다루지 않는다.

소-공동'의 어순으로 SOV 유형에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SVO 유형인 중국어가 한국어와 동일하게 '시간-장소-공동'의 어순이다. 반면, 같은 유형에 속하는 영어가 오히려 '공동-장소-시간'의 어순으로 중국어와는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학습자들은 대부분 중국어 학습이전에 영어를 제1외국어로 배웠기 때문에 중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기준점을 영어에 두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SVO라는 유형론적 동일함 때문에 중국어도 영어와 비슷할 거라는 학습자의 기대가 있다. 그러나 살펴본 것 같이 동일한 언어 유형이라는 영어와 중국어는 어순에 있어서 동사가 목적어에 선행한다는 기본적인 사실 외에는 동일한 경우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7. 문미 의문조사 있음 / 문미 의문조사 없음

(23) 너는 점심 먹었니?

Have you had lunch?

你吃午飯了嗎?

한국어는 SOV 언어로서 판단의문문에서 주어, 동사의 도치 없이 문미에 의문조사를 사용한다. 영어는 SVO 언어로서 문미에 의문조사가 없고 문두에서 주어, 동사의 도치가 일어난다. 한편, 중국어는 SVO 언어임에도 한국어처럼 주어, 동사의 도치 없이 문미에 의문조사를 써서 의문문임을 나타낸다.

Greenberg(1963)는 동사와 목적어 순서, 수식어와 피수식어 순서 간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모두 살펴보았듯이, 한국어는 Greenberg의 결론에 부합하는 충실한 답안이지만 중국어는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중국어는 유형론적 보편성에 부합하지 않는 어순이다. 재밌는 점은 중국어의 어순에서 동사-목적어의 어순만 바꾸면 바로 한국어의 어순이라는 것이다. 즉, 두 언어는 동사와 목적어의 순서가 바뀌기만 하면 완벽히 어순이 같다.

그동안 '한국어는 SOV, 중국어는 SVO'라는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유형 분류로 인해 중국어의 어순 문제는 중국어 학습에 있어 장애로만 여겼다. 중국어가 어려운 것은 "한국어와 어순의 유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

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중국어 학습이 어려웠던 것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순 유형이 달라서가 아니고 오히려 동일한 어순임에도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V. 한국어 의존적 중국어 학습법

본고는 목표어의 학습을 저해하는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보다는 학습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전이에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중국어와 한국어에 공유되는 긍정적 전이로서의 몇 가지 통사론적 자질들을 논하려 한다.

1. ‘수식어-피수식어’ 어순

‘속격-명사’, ‘관형어-명사’, ‘관계절-명사’, ‘부사어-명사’에서 앞의 성분은 수식어가 되고, 뒤의 성분은 피수식어가 된다. 즉, 4장의 2절, 3절, 4절, 6절에서 논의한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중국어는 한국어처럼 ‘수식어-피수식어’ 어순이라는 것이다.

2. 주어와 목적어 생략

주어와 목적어의 생략은 담화 요소들의 생략 가능성을 의미한다.

- (24) a. 길동이는 뭘 잃어버렸는데?
 b. 지갑을 (잃어 버렸어).
 c. 吉童丢了什么?
 d. 錢包(丢了).
- (25) a. 누가 지갑을 잃어 버렸는데?
 b. 길동이가 (잃어 버렸어).
 c. 誰丢了錢包?

d. 吉童(丢了)。

한국어는 (24a), (25a)의 질문에 일부 담화 요소를 생략하고 각각(24b), (25b)와 같이 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어도 (24c), (25c)의 질문에 일부 담화 요소를 생략하고 각각 (24d), (25d)로 답할 수 있다. (24b), (24d)는 목적어만으로, (25b), (25d)는 주어만으로 적격한 문장이 된다. 즉, 질문자가 알고자 하는 요소가 아니라면 목적어나 주어가 반드시 나타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국어와 중국어는 모두 담화상 문장 필수성분의 생략을 허용할 뿐 아니라, 실제 담화라면 오히려 이들의 생략이 훨씬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반면, 영어의 경우에는 다음 예문과 같은 생략은 일어나지 않는다.

(26) a. What did John lose?
b. *Lost wallet.

(27) a. Who lost the wallet?
b. *John lost.

3. 대동사와 도치 불필요

중국어와 한국어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영어의 do와 같은 대동사의 존재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의문문에서 주어와 동사의 도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영어는 부정이나 의문을 할 때 일반 동사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조동사가 없을 시에는 대동사 do가 요구된다.

(28) a. I don't study Chinese.
b. *I study not Chinese.

(29) a. Do you study Chinese?
b. *Study you Chinese?

(30) a. 너는 중국어를 공부하지 않는구나.

b. 너는 중국어를 공부하니?

(31) a. 你不學漢語。

b. 你學漢語嗎?

이처럼 중국어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영어의 대동사와 같은 복잡한 구조를 학습할 필요 없이 대동사가 필요 없는 한국어에 의존하여 학습할 수 있다.

어순은 해당 언어를 습득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문법을 가르치는 것은 어순을 가르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언어의 배열순서는 중요하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중국어에 대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중국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우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세계의 언어를 유형별로 분류한 언어 유형론의 기반 아래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과는 달리 중국어의 어순을 한국어와 비교해보면 언어의 통사 구조가 매우 비슷함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 의존적인 중국어 학습법을 제안하기로 한다. 중국어 습득시 일어나는 한국어의 전이현상을 이용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에 공유되는 즉, 긍정적 전이 작용을 할 수 있는 통사론적 자질을 학습한다면 중국어 학습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언어 유형론의 핵심은 세계 언어의 범언어적 비교에 있다. Greenberg의 45개 보편성 진술 중 절반이 넘는 부분이 어순 유형에 관한 것이다. 그의 연구가 언어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중국어의 경우에는 보편성이라는 관점이 무색할 정도로 어순유형론 규칙이 맞지 않는다.

언어 유형론에서 한국어는 SOV 언어로 분류된다. 중국어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크지만 적어도 교학 차원에서는 SVO 유형의 언어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한국어와 중국어는 그 언어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예외를 인정한다 해도 문장성분의 배열순서가 일치하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4장에서 중국어와 한국어가 많은 경우에 어순이 완벽히 일치함을 확인했다. 다시 말해, 어순유형론으로는 중국어와 한국어가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하지만, 양 언어의 문장성분들이 서로 같은 순서로 배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실, 구조주의 및 생성문법의 통사론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탄생한 어순유형론의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유형적으로 다른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순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최근에는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이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남궁양석(1999), 진준화(2014) 등은 양 언어에 인지사유의 원리가 내재되어 있으며 그 원리가 어순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남궁양석(1999)은 중국어 어순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어법 원칙’, ‘논리사유 원칙’, ‘시간순서 원칙’, ‘언어습관 원칙’, ‘리듬 원칙’에 대해 고찰하면서 어순이 어느 한 원칙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가 상호 작용하여 이루어진다고 했다.¹⁷⁾ 진준화(2014)는 왜 유형적으로 서로 다른 한국어와 중국어가 문장 구조에서는 거의 동일한 어순을 갖는가에 대해 양 언어 모두 동일한 인지 메커니즘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고 했다.¹⁸⁾

VI. 나가기

언어 유형론의 업적은 특히 어순 연구에서 두드러지는데, 어순에 관한 연구는 Greenberg(1963)에서부터 체계를 잡았다. 그는 30개의 표본 언어를 분석하여 45개의 언어보편성을 제시하였다. 어순 가운데 그가 중요시한 것은 ‘누가, 무엇을, 어찌하디’의 상대적 어순과 ‘전치사/후치사’의 어순이다. Greenberg는 기본 어순에 관련된 보편성으로 첫째, 전치사 언어인가, 아니면 후치사 언어인가, 둘째, S, V, O의 순서가 어떠한가, 셋째, 수식어와 명사의 위치가 어떠한가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했다.

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식어와 명사의 상대적인 어순은 SVO, SOV 어순과의 상관성이 비교적 적지만, 전치사, 후치사의 존재 여부는 주어, 목적어, 동사의

17) 남궁양석 〈現代 中國語 語順 決定 要因의 考察〉, 《中國語文論叢》 1999년 17집, 143-144쪽 참조.

18) 진준화(2014)가 제시한 의미어순 배열 원리는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시간적으로 먼저 관찰된 사건 순으로 어순 배열, 둘째, 동작 발생의 시간 순서에 따른 어순 배열, 셋째, 원인과 결과 순서로 어순 배열, 넷째, 물리적 경험이나 지식의 범위가 큰 것에서 작은 순서로 어순이 배열된다는 것이다. 진준화 〈한국어와 중국어 문장 의미어순 배열에서 나타나는 인지 메커니즘〉, 《한민족문화연구》 2013년 44집, 17-21쪽 참조.

어순과 상대적으로 상관성이 크다고 한다. 즉, SVO 언어는 대부분 전치사를 갖고 있고 SOV 언어는 대부분 후치사를 갖고 있다. 이밖에도, SVO, SOV 언어는 명사-관계절, 명사-소유격, 조동사-동사 등 기타 어순의 관계에서도 서로 대립적인 특징이 있다.

Greenberg의 논의는 언어보편성의 관점에서 매우 중대한 공헌을 했다. 한국어는 매우 충실하게 그가 제시한 보편적 유형론에 일치한다. 한편, 중국어는 매우 특이하게도 보편적 유형론에 맞지 않는 어순 구조를 보인다.

제2언어 습득에는 필연적으로 모국어의 전이가 발생한다. 모국어 전이는 두 가지인데 제2언어 습득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전이와 습득을 방해하는 부정적 전이가 있다. 본고는 목표어의 학습을 저해하는 부정적 전이보다는 학습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전이에 관심을 두었다.

중국어는 한국어와 완전히 다른 언어 유형이라는 선입관과 오해가 있기에 학습자들은 학습 초기부터 부담을 갖고 시작한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실제 고찰 결과 중국어는 한국어와 문장구조, 특히 어순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먼저 어순유형론을 고찰하고 한국어와 중국어 간의 어순을 비교했다. 더불어 중국어와 한국어에 공유되는 몇 가지 통사론적인 자질들도 논의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일치하고 통사론적 자질들이 공유되므로 한국어에 의존해서 중국어를 학습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즉, 중국어 습득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한국어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와 중국어가 공유하는 자질들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 즉, 중국어 학습에 있어 긍정적 전이의 역할을 하게 될 공통된 자질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다행히 어순유형론에 관한 지난 40여 년간의 선행 연구는 한국어에 의존하여 중국어를 학습할 수 있다는 본고의 주장에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즉, 본고는 언어전이 이론을 바탕으로 유형론적으로는 한국어와 다르지만 중국어 학습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국어의 문법 현상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교학적으로 어떻게 운용할 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논거가 되는 예시는 중국어 문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형식의 문장을 예로 들었다. 따라서 보다 근거 있게 본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국어 특성이 더욱 잘 반영된 복잡한 문형이나 특수 구문 등도 함께 예시되어

야 한다. 즉, 다양한 문장 형식이나 각종 문법 특징과 관련된 예시가 제시된다면 본고의 논거가 보다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기며 만약 향후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면 중국어 학습 전반에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參考文獻】

- Robert Lado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pplied Linguistics for Language Teachers》 1957, 원경식 옮김 《언어와 문화》 서울, 형설출판사, 1980.
- Li & Thompson <An Explanation of Word Order SVO→SOV>, 《Foundation of Language》 12, 1974.
- Li & Thompson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박정구·박종한 역 《표준중국어문법》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6.
- Hashimoto, Mantaro J. <Language Diffusion on the Asian Continent: Problem of Topological Diversity in Sino-Tibetan>,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no-Tibetan Linguistics, 1975.
- Tai, James. H·Y. <Chinese as a SOV Language>, 《Papers from the 9th Regional Meeting of Chicago Linguistic Society》, 1973.
- Tai, James. H·Y. <On the Change From SVO to SOV in Chinese>, 《Parasession on Diachronic Syntax, Chicago Linguistic Society》, 1976.
- Sampson, G. 《Schools of Linguistic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0, 권연진 역, 《현대언어학의 흐름》 부산, 부산대학교, 1999.
- 梅廣 <現代漢語眞的是一種SOV語言嗎?>, 《台靜農先生八十壽慶論文集》, 1982.
- 承熹 <漢語語序與詞序變遷中的問題>, 《語言學論集: 理論應用及漢語語法》台北, 文鶴出版社, 1983.
- 朱德熙 《語法講義》北京, 商務印書館, 1982.
- 戴浩一 <時間順序和漢語的語序>, 黃河譯 《國外語言學》 1988年 1期.
- 劉寧生 <漢語偏正結構的認知基礎及其在語序類型學上的意義>, 《中國語文》 1995年 第2期.
- Hashimoto(1975) <아시아 대륙에서의 언어 확산: 한자어의 유형학적 다양성 문제>, 엄익

- 상 역, 한국중국어학회 편 《中國語 語順 研究》 서울, 송산출판사, 1998.
 이정민, 배영남, 김용석 《언어학사전》 서울, 박영사, 2000.
 조성식 편 《영어학사전》 서울, 신아사, 1990.
 권재일 《한국어 통사론》 서울, 민음사, 1992.
 전상범 《형태론》 서울, 한신문화사, 1995.
 김영석 《영어형태론》 서울, 한국문화사, 1998.
 한국중국어학회 편 《中國語 語順 研究》 서울, 송산출판사, 1998.
 남궁양석 〈現代 中國語 語順 決定 要因의 考察〉, 《中國語文論叢》 1999년 17집.
 장호득 〈중국어 어순에 대한 고찰〉, 《東洋學》 2004년 35집.
 이정심 〈현대 언어학의 언어 모형 고찰〉, 《중국어언어연구》 2004년 19집.
 박정구 〈중국어 어순유형론 연구의 성과와 전망〉, 《中國學報》 2006년 54집.
 진준화 〈한국어와 중국어 문장 의미어순 배열에서 나타나는 인지 메커니즘〉, 《한민족문
 화연구》 2013년 44집.

【中文提要】

語序類型學在語言類型學的發展過程中占据重要地位, 這在很大程度上得益於格林伯格1963年發表的經典論文《某些主要跟語序有關語法普遍現象》。格林伯格的研究成果以來, 很多研究者開始根據語序對人類語言進行類型的分析, 與此同時也引發了對漢語類型的研究, 有關漢語語序是SVO還是SOV的爭論不斷擴散。

本文以格林伯格的研究為出發點, 介紹并討論在其研究成果上的語序共性。格林伯格以30種語言為研究基礎, 論及了45個語序共性現象。他強調指出如果一種語言以SOV為語序, 那麼形容詞也處於名詞之前, 副詞也處於動詞之前, 即修飾成分在被修飾成分的前面, 如韓語。如果一種語言以SVO為語序, 那麼形容詞也處於名詞之後, 副詞也處於動詞之後, 即修飾成分在修飾成分的後面, 如英語。但漢語的情形完全不符合此共性, 漢語雖是SVO結構但其語序完全與其他SVO結構語言不同。事實證明, 漢語語序與韓語語序相同, 例如修飾成分在被修飾成分之前。這可以提供利用韓語來學習漢語的線索。

第二語言習得, 母語遷移有正遷移和負遷移兩種現象。母語正遷移指母語

對目標語言的學習起促進或積極作用，母語負遷移指母語對目標語言的學習起干擾或抑制作用。本文更注重母語的正遷移，從漢語的語序與韓語相同的事實出發提出漢語學習上的一種方案，即利用漢語與韓語共有的在它們句法結構存在的一些句法特征來學習漢語。

【主題語】

긍정적 전이, 부정적 전이, 언어보편성, 통사론적, 어순유형론

正迁移, 负迁移, 语言共性, 句法, 语序类型学

positive transfer, negative transfer, universals, syntactic, word order typology

투고일: 2016. 10. 15 / 심사일: 2016. 10. 25 ~ 11. 10 / 게재확정일: 2016. 11. 15

